

	일본 (도쿄) 사무소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해외동향보고서		담당자	성용찬 소장
			일시	2024.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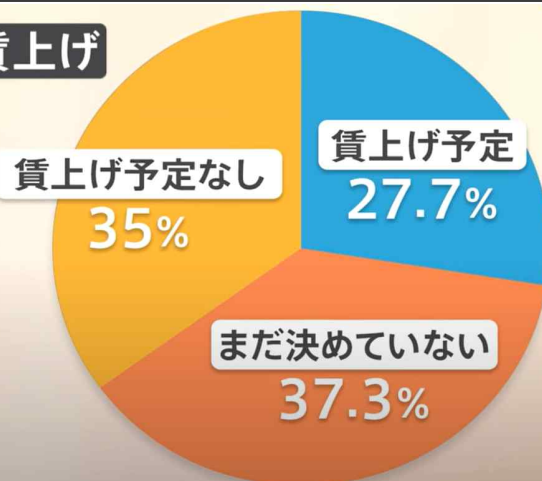
## CEPA Insight

- ① 일본 임금 인상 요구 본격화
- ② 일본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 최대
- ③ 일본은행 대규모 금융완화 유치(마이너스 금리 해제 보류)
- ④ 노토반도 지진 동향

### ① 일본 임금 인상 요구 본격화

- 일본의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본 대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의지를 보이고 있음. 대기업들 회원사로 둔 게이단렌은 이미 지난 16일 회원사들이 올해 임금을 4% 이상 올려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함.
-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3% 이상의 기본급 인상에 정기승급분을 포함해 5%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임금인상은 일본 정부가 앞장서 추진)
- 일본 정부는 장기간 지속된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이 중요하다는 입장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2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노사정 회의에서 물가 상승을 웃도는 구조적 임금 인상 실현을 위해 "지난해를 웃도는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청한다"고 언급
- 주류·음료 업체 산토리홀딩스와 기린홀딩스는 평균 6~7%, 니혼생명과 다이이치생명은 평균 7% 임금 인상을 고려하는 등 대기업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와는 달리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70% 이상이 신중 반응

#### 中小企業の賃上げ



- 하늘색 구간 : 임금인상 예정 (27.7%)
- 주황색 구간 : 아직 결정 안됨 (37.7%)
- 호박색 구간 : 임금인상 예정 없음 (35%)

(출처 : TBS / 2024.01.25. 파이낸셜뉴스 / 2024.01.25)

## ② 일본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 최대

- 작년 2023년 10월 기준 2,048,675명 기록
- 전년도 대비 225,950명 증가한 것으로, 기록이 의무화된 2007년 이래 최대이며 200만명을 넘은 것은 최초(전년도 대비 12.3% 증가)
- 이 중 베트남 노동자는 518,364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25.3%로 최대
- 전문·기술 분야는 595,904명으로 전년도 대비 24.2% 증가
- 증가 이유로 일본의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코로나 이전 상황과 가까운 증가율)

(출처 : TBS / 2024.01.26.)

###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외국인이 취직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경우, 이에 관한 기본 사항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1. 직업이나 업종을 불문하고 일할 수 있는 재류 자격

"영주자", "일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장기 거주자" 이러한 재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일본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직종에서도 일할 수 있으며 다른 직종으로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습니다.

#### 2. 특정 직종, 업종, 업무 내용 범위 내에서만 일할 수 있는 재류 자격

「교수」, 「예술」, 「종교」, 「저널리즘」, 「고도 전문직 1호」, 「고도 전문직 2호」, 「경영학」, 「법률·회계」,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국제서비스」, 「사내 전근」, 「접대」, 「기능」, 「특정활동」, 「특정기능」(워킹홀리데이, 기능실습생 등 법무부 대신이 지정하는 활동에 한해 일할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업 상담 및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재류자격이라도 다른 재류자격에 속하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의 허가 또는 재류자격 변경 허가가 필요

### 일본에서 일할 수 없는 외국인(불법 취업)

1. 취업이 가능한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재류 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소득을 수반하는 활동 또는 재류 자격에 의해 허용되는 활동 이외에 허가를 얻지 않고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
2. 취업할 수 없는 재류자격으로 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한 경우
3. 규정된 재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및 근무하는 경우

※ 세부내용 : [https://site.mhlw.go.jp/tokyo-foreigner/tenshokusha/nihon\\_hataraku\\_gaikokujin/spec\\_1a.html](https://site.mhlw.go.jp/tokyo-foreigner/tenshokusha/nihon_hataraku_gaikokujin/spec_1a.html)

(출처 : 동경외국인고용센터 / 2024.01.26.)

### ③ 일본은행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마이너스 금리 해제 보류)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 23일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완화 정책 유지 결정
- 단기금리를 -0.1%로 동결,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
- 2016년 이후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로 동결했으나, 장기금리는 2022년 말부터 소폭 확대 허용
- 이번 결정은 노토반도 강진과 봄철 임금협상 등을 고려해 낮은 금리 유지에 영향
- 일본은행이 물가와 임금 동향을 지켜보기 위해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전문가들은 봄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건으로 물가 2%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승과 임금과 물가 상승 선순환을 제시하였고,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1% 오르며 1982년 이후 41년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 기록
- 따라서, 춘투(春闘 : 봄철 임금협상)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4월에 임금 인상 추이를 확인한 후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통해 금융정책 변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 한편 2024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에서 2.4%로 하향조정하고, 2025년도는 1.7%에서 1.8%로 상향조정 (출처 : 연합뉴스 2024.01.23)

### ④ 노토반도(이시카와현) 지진 동향

- (현황) 1.1일 16시 지진 최초 발생 이후 1,200회 이상 여진이 지속
  - 지속적인 여진으로 구조작업이 어렵고 재난지역\*에 비와 눈으로 산사태 위험도
    - \* 재난지역 : 호쿠리쿠 지역(이시카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니가타현
- (이시카와현 피해) 2024. 1. 24일 기준
  - \* 사망자(233명), 행방불명(19명)부 중상자(1,175명), 대피(15,133명) 주택피해(40,572채)
    - 정전(약 4,400세대) 단수(45,380세대) \* 도야마현 :5,000채 이상 가옥 피해
- (영향) 소매·물류업의 임시 휴업과 배송 지연, 제조업의 생산 공정 일시 중단 등
  - (소매업) 재난지역에서 편의점이 임시 휴업했으나, 영업 재개 점포가 증가 중
    - \* 임시휴업 편의점(1.6일 8시 기준) : (패밀리마트) 23개 지점, (로손) 1개 지점
  - (물류업) 화물 운송 물류가 중단되어 배송 지연 발생
    - \* 야마토운수, 사가와, 일본우편의 호쿠리쿠·니가타 일부 지역 물류가 중단했으나, 점진적으로 재개 중
  - (제조업) 생산공장 설비 손상이 다수 있었지만, 약 70%는 생산 활동을 재개했거나 순차적으로 재개 예정 (경제산업성, 1.8 기준)
- (금융) 연내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어려울 전망 (블룸버그, 1.2)
  - 연내 마이너스 금리 해제 전망이 우세했으나, 지진 복구 추경 확보 및 지역 경제를 위해 연기 예상 → 전망대로 금리 해제 보류(3번 동향) (출처 : 코트라, 2024.01.10. / NHK 뉴스, 01.24)